

#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생활만족도와 건강을 중심으로 -

A Study of Divorce Adjustment of Divorc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 focus on Life Satisfaction and Health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옥선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전임강사 성미애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Ok, Sun Wha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Full-time lecturer : Sung, Miai

##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 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st-divorce adjustment level, by focusing on life satisfaction, health, stress and resource factors, for divorc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Also, it examined how these factors affect life satisfaction and health. For this empirical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from 114 divorced men and 112 divorced women, 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23rd Sep. to 20th Oct., 2002. The questionnaire for the survey dealt with demographic information, life satisfaction, health, stress and resource factor scales.

Corresponding Author: Sung, Miai,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169 Dong sung-dong, Chongro-Gu, Seoul 110-791, Korea Tel: 82-2-3668-4648 Fax: 82-2-3668-4188 E-mail: eliza\_s@knou.ac.kr

\* 이 논문은 2003년도 두뇌한국 21 신규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이 연구는 두뇌한국 21 신규사업 과제인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적응과정-아동, 청소년, 이혼남녀의 적응 지원 방안 모색-"의 일부임.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연구목적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www.snu.ac.kr) BK21에 제시되어 있음.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project were as follows.:

First, the life satisfaction and health levels of the divorced men and women were low. Especially, divorced women had more phys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than men. Second, the divorced men's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pre-divorce life events and education level, whereas the divorced women's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subjective economic dissatisfaction, pre-divorce life events, everyday life level when they were divorced, and social support. Finally, the attitude toward divorce of significant others and pre-divorce life events were important variables for the divorced men's health, whereas attachment toward ex-spouse, pre-divorce life events, pre-divorce marital conflict and social support were affectable variables for the divorced women's health. The results of current research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ivorce adjustment programs according to gender.

**주제어(Key Words):** 20, 30대 이혼 남녀(divorced persons in their 20s, and 30s),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건강(health), 스트레스 변인(stress variables), 자원 변인(resource variables)

## I. 문제제기

이혼이 절대 최선책은 아니지만,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차선책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혼 후 적응을 지원하는 방안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혼을 불행한 결혼생활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하며, 사회적으로도 이혼을 행복하지 않은 결혼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 1998; 이현송, 1999; 한경혜, 이정화, 2000; 한경혜, 강유진, 한민아, 2003; 김성희, 2003 등)이 있지만, 아직도 이혼자들은 여전히 사회의 소수집단으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결과들(박경애, 1999; 박부진, 2000; 한경혜, 1993 등)이 보고되는 상황에서는 이혼자들의 이혼 후 적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60, 70년대에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80년대부터 이혼 후 적응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왔다. 그리고 실제 어떤 변수들이 어떤 대상자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들(Amato, 2000; Berman, 1985; Booth & Amato, 1991; Johnston & Wallersten, 1989; Wallersten, 1989 등)을 진행하여, 이혼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혼을 증가가 가시화 되는 1990년대부터 이혼에 관한 연구들(김성희, 2003; 문현숙, 김득성, 2000; 박경애, 2000; 박부진, 2000; 한경혜, 1993b, 한경혜, 김영희, 1994; 한경혜 외 2인, 2003 등)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혼 후 적응을 지원하는 연구 및 이혼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들(김경집, 2002; 김득성, 2002; 문현숙, 김득성, 2002a, 2002b; 성정현, 1999, 2002; 한경혜, 1993 등)이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이혼 후 적응을 살펴본 연구들은 몇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연구설계상의 한계로, 이혼 후 적응을 주로 이혼 후 상황과 관련된 변수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물론 이혼이 단절적 사건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속되는 하나의 적응 과정이기 때문에 이혼 후 상황이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은 충분히 예측된다. 그러나 이혼 상황은 부부나 자녀 모두에게 있어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후 변하기 시작한 가정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며(장혜경, 민가영, 2002), 법적 이혼 이전에 소위 정서적 이혼이 일어나고 그 때부터 이혼에 대한 예비적 적응이 시작된다(임춘희, 1998)고 한다. 따라서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혼 후 시점뿐만 아니라 이혼 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도 연구설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한계로,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이혼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로 이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실 연령에 상관 없이 이혼은 배우자 사별 다음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사건(Holmes & Rhae, 1976)이라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이혼에 대한 태도도 상이하며(한경혜, 이정화, 2002), 이혼 전 결혼생활 지속년수나 경험도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을 단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범주로 간주해서 연구를 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혼자들의 이혼 후 적응을 지원하는 연구는 보다 대상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부장제가 잔존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혼 남성보다 이혼 여성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 경제 구조가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상황에서는 이혼 여성이 이혼 후 적응하기가 더 힘들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등의 말을 남성이 읽어야 하는 수신서에 포함시켰듯이, 남성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가장(家長)으로서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이끌지 못하고 이혼으로 해체한 것은 남성 개인에게도 힘든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혼 여성뿐만 아니라 이혼 남성도 포함해서 이혼 후 적응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20, 30대 이혼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로 이들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래 이혼이 선택의 성격을 갖기는 하지만,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최선택이 아니라 차선택으로 선택되는 만큼, 이혼 후 적응 과정은 이혼 이전부터 계속되는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후 적응 과정을 지원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을 구분해서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생애과정에서 볼 때 어떤 연령층에서 이혼을 했는지에 따라 이혼과정이나 이혼 후 적응과정이 다양할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0, 30대 이혼이 전체 이혼의 57.8%를 차지하고 있는 등(통계청, 2003), 단일 연령층으로는 이 연령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 후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이 연구의 성격상, 20, 30대 이혼 남녀를 연구 대상으로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성별로 나누어서 이혼 후 적응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성의 결혼(his marriage), 여성의 결혼(her marriage)이 있다고 하듯이, 결혼생활 자체가 성별로 다르게 인식되며, 또한 결혼생활에 대한 의존도 성별로 다르기 때문에(Gerstel, 1985),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도 성별로 구분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혼 관련 연구들(이재경, 2000; 장혜경, 민가영, 2002; 한경혜, 이정화, 2002; 한경혜 외 2인, 2003; Hemström, 1996; Hetherington, Cox, & Cox, 1978; Raschke, 1987)에서도 많이 언급하는 내용 중 하나는 이혼 후 어려움과 관련된 남녀간 차이 문제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혼 후 적응의 지표로 생활만족도와 건강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만족도는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을 살펴보는 척도인 만큼 이혼 후 일상생활에 적응한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 될 것이다. 또한 이혼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서적, 신체적 건강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성정현, 1998; Bloom et al., 1978; Chiriboga et al., 1978; Hetherington, Cox, & Cox, 1978; Weiss, 1975)를 볼 때, 건강은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혼 후 적응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러한 연구 설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 수준(생활만족도, 건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20, 30대 이혼 남녀의 스트레스 변인, 자원 변인은 이혼 후 적응(생활만족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20, 30대 이혼 남성의 스트레스 변인(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이혼 전 생활사건, 이혼 당시 생활수준, 가정경제불만족도, 이사유무,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과 자원 변인(이혼제기자, 이혼에 대한 태도,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사회적 지원, 자녀 유무, 교육수준)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20, 30대 이혼 여성의 스트레스 변인(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이혼 전 생활사건, 이혼 당시 생활수준, 가정경제불만족도, 이사유무,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과 자원 변인(이혼제기자, 이혼에 대한 태도,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사회적 지원, 자녀 유무, 교육수준)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20, 30대 이혼 남녀의 스트레스 변인, 자원 변인은 이혼 후 적응(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3-1. 20, 30대 이혼 남성의 스트레스 변인(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이혼 전 생활사건, 이혼 당시 생활수준, 가정경제불만족도, 이사유무,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과 자원 변인(이혼제기자, 이혼에 대한 태도,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사회적 지원, 자녀 유무, 교육수준)은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3-2. 20, 30대 이혼 여성의 스트레스 변인(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이혼 전 생활사건, 이혼 당시 생활수준, 가정경제불만족도, 이사유무,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과 자원 변인(이혼제기자, 이혼에 대한 태도,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사회적 지원, 자녀 유무, 교육수준)은 건강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혼 후 적응 과정을 지원하는 적응 교육 프로그램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결혼준비교육이나 이혼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II. 선행 연구 고찰

### 1.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

#### 1) 이혼 후 적응 개념

이혼 후 적응에 대해서 Spanier와 Castro(1979)는 '상실에 대한 적응'과 '새로 획득한 생활양식에 대한 적응'이라는 이차원적 개념으로 이혼 후 적응을 설명하였다. 성경현(1999)은 이혼 적응을 이혼을 정서적으로 수용하고 이혼 전의 지위나 전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변화된 경제적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회적 지지망을 수립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독립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문현숙과 김득성(2000)은 이혼 후 적응을 이혼 전 지위나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여 새로운 생활을 확립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예전에는 재혼을 하거나 전 배우자와 접촉을 완전히 끊는 단계에 이르러야 적응이라고 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지위나 전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신의 독립적 정체감을 확립하고 일상생활의 제반 역할 등을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적응이라고 정의한다(Kitson & Raschke, 1981).

이러한 정의를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혼 후 적응을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는가에 초점을 두고서, 이혼 전, 후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면서 이혼 후의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 2) 이혼 후 적응의 측정

이혼 후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경심, 내외통

제성, 건강이나 심리적 기능 상태, 일상생활의 역할 수행 정도, 생활만족도 등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되어 왔다(Price & McKenry, 1988: 한경혜, 1993a, 65에서 재인용).

이러한 개념의 공통점은 이혼이라는 생활사건과 이혼 후 일상생활을 수용하면서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혼 후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로는 현실적 문제, 대인 관계 및 사회적 문제, 가족 문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들(Berman & Turk, 1981; Hetherington, Cox, & Cox, 1978; Bloom et al., 1978; Berman, 1985 등)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 문제나 대인 관계 및 사회적 문제, 그리고 가족 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생활만족도를 통해서 적응 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 건강 문제는 실제적인 건강 수준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혼 후 적응은 다측면적이며 연속적인 과정(Price & McKenry, 1988; Weiss, 1975)이기 때문에 단일 척도보다는 복합 척도로 측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혼 후 적응을 생활만족도와 건강이라는 변수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생활만족도는 각 생활의 개별적인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만족상태라기보다 현재 자신의 생활상태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즉 삶 전체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태도이고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및 현재까지의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Neugarten, Havighurst, & Tobin, 1961: 정옥례, 1996에서 재인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활만족도는 이혼 후 생활에 대한 적응 여부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응이라는 것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적절히 기능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Fine, McKenry, & Chung, 1992)이다. 따라서 실제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정서적, 신체적 건강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성정현, 1998: Bloom et al., 1978; Chiriboga et al., 1978;

Hetherington, Cox, & Cox, 1978; Weiss, 1975)도 이미 보고되었기 때문에, 이혼 후 적응의 지표로 건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이혼 후 적응을 생활만족도와 건강이라는 하위 척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3) 이혼 후 적응에서 보이는 성차

이혼 후 적응에 관한 연구들에서 언급하는 이혼 후 적응에서 보이는 성차를 살펴보면, 크게 세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입장은 이혼이 남성보다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Hetherington, Cox, & Cox, 1978; Simon & Marcussen, 1999; Shapiro, 1996 등)이다. 이 입장은 대부분 여성이 만성적 재정 갈등을 겪으며, 특히 여성들은 일차적 정체감을 가정내 역할로 정의하도록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 후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으며, 적응 시간도 더 필요로 한다고 본다.

두 번째 입장은 반대로 이혼 남성이 이혼 후 적응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Hemström, 1996; Keith, 1985; Masheter, 1991; Reissman & Gerstel, 1985 등)한다. 즉 남성은 결혼에서 얻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이혼 후 적응이 쉽는데, 특히 건강의 측면에서 발병할 비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입장은 이혼 후 적응에서 성차가 없다는 입장(Booth & Amato, 1991; Ross, 1995; White, 1992 등)으로, 이 입장에서는 성별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여성은 이혼 전에, 남성은 이혼 후에 더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남녀에게 있어 결혼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혼 후 적응에서도 성차를 보일 거라는 가정 하에 성별로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혼 후 적응 관련 변수 고찰

이 연구는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찰한다. 따라서 이혼 후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구체적인 이혼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되는 변수와 자원이 되는 변수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 변인은 이혼과 관련해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적인 생활사건이 될 수 있는 변인, 자원 변인은 이혼과 관련된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변인이라고 정의한 뒤,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스트레스 변인

#### (1)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부부간 갈등은 이혼 전 당사자와 자녀의 정서나 심리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이혼 후까지 계속된다(Sprey, 1979). 특히 이혼 가정의 폭력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Wallerstein & Blakeslee, 1989)에 따르면, 이혼 전 25%, 이혼 단계에서 50% 이상이 부부간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은 외상적 경험으로 남아 이혼 후 적응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폭력의 주체로 인식되는 남성보다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2) 이혼 전 생활사건

생활사건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나 통제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혼 후 적응을 이혼 전 갈등 상황에서부터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혼 전에 경험한 생활사건은 이혼 남녀를 지치게 하여 이혼 후 적응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3) 이혼 당시 생활수준

이혼이라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진다. 특히 이혼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생활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혼 후 생활수준에 대해서 낙관한다면 이혼 후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 (4) 가정경제불만족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 토대가 되는 경제적 수준이 삶의 안정에 필요조건이며, 삶의 만족과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인간은 객관적 경제 수준보다 주관적 경제 만족도로 자신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규정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가정경제불만족도는 이혼 후 적응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편모에 대한 연구(신화용, 조병은, 1996; 한경혜, 1993a)에서도 이혼 가정은 주택 마련과 학비 조달 등 경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밝힌 것을 보면, 가정경제불만족도가 이혼 후 상황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적응 수준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혼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생활수준을 낮춘다는 보고(한경혜, 1993b; Shapiro, 1996; Wang & Amato, 2000)도 있지만, 여성 노동력의 가치가 남성의 60% 내외 수준인 한국 사회에서는 이혼 여성의 이혼 적응에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 이사유무

거주지는 삶의 안정적 토대가 되며, 인적 관계망의 물리적 근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이사는 적응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혼 후 이루어지는 이사는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이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옥선화, 성미애, 2004), 이혼 후 적응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이혼 여성의 경우 이혼 후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적응이 어렵다는 연구결과들(Cohen & Dekker, 2000; Weitzman, 1985)을 보면, 이혼 남성보다 이혼 여성이 이사 유무에 따라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6)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이혼은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인간관계의 속성상 이혼이라는 결정과는 무관하게 감정적 양금은 애착의 형태로 남을 수가 있다. 이혼 후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은 이혼 후 적응에 세 가지 방향으로 연결된다. 첫째는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정서적 이혼을 방해하여 이혼 후 적응을 어렵게 한다(한경혜, 1993b; Berman, 1985; Kitson, 1982; Weiss, 1975)는 것이다. 반면,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살펴본 연구(Ahrons & Wallisch, 1986)에서는 전 배우자와 상당한 정도의 애착과 접촉이 유지되면, 자녀양육에 비양육 부나 모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면서 이혼 후 적응을 잘 한다는 보고도 있다. 그리고 두 변수간 관계가 없다는 연구(Masheter, 1991; Masheter & Harris, 1986)는 전 배우자와의 애착은 우정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혼 후 적응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 2) 자원 변인

### (1) 이혼제기자

일반적으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보다 결혼의 해체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Emery, 1994), 이혼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불가피한 현실로 수용하면서 이혼 이후 자신의 삶이나 역할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혼 후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통제력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후 적응을 잘 한다는 보고(Kitson, 1992; Wang & Amato, 2000)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이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문현숙, 김득성, 2000)에서는 결혼 파탄의 책임이 주로 남편에게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여성이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혼제기자라고 이혼 후 적응을 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2)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혼 후 적응과 긍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이혼 후 적응 관련 연구들(Plummer & Koch-Hatten, 1986; Wang & Amato, 2000)에서도 이혼을 보다 수용하는 태도는 이혼을 하나의 도전이나 새 출발로 보는 경향이기에 때문에 일관되게 이혼 후 적응을 잘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 (3)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사람의 정체감은 정보의 중요한 원천으로 규정되는 의미있는 타자의 주장, 태도, 의사소통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Cooley, 1902; Mead, 1934; Peterson, Stivers, & Peters, 1986에서 재인용). 따라서 의미있는 타자가 이혼 당사자의 이혼을 어떻게 수용하는지가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혼 후 적응에 관한 연구들(김혜련, 1993; Holloway, 1991)에서도 가까운 사람이 이혼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혼자를 혼자인 느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혼 결정에 회의를 느끼게 함으로써 이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위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이혼자의 우울감과 긴장을 증가시켜 이혼 상황에 대한 대처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 (4)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어려움을 겪을 때 잠재적 도움을 줌으로써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적게 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조병은, 1993, 330). 실제 이혼 후 적응에 관한 연구들(문현숙, 김득성, 2000; 변화순, 1996; 성정현, 1998; 한경혜, 1993b; Kitson & Morgan, 1990 등)에서는 이혼 후 적응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원이 이혼으로 인한 긴장 효과를 감소시키고 이혼 이후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5) 자녀유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자녀가 절망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삶의 희망이 되는 존재 의미를 갖는다. 특히 20, 30대 이혼 남녀는 성별에 상관없이 부모 역할에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며,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만족보다 자녀의 존재 자체에서 만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옥선화, 성미애, 2004), 자녀의 존재는 이혼 후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녀의 존재는 부양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혼 후 적응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자녀가 있으면 시간과 금전적 자원의 지출이 많아지며, 자녀양육을 담당하면서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제한되는 등 이혼 후 적응을 힘들게 한다(한경혜, 1993a, 1993b; Holden & Smock, 1991)는 입장과, 자신이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

음으로 해서 이혼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동기를 제공하여 이혼 후 적응을 용이하게 한다는 연구(Weiss, 1975)가 있다. 반면, 자녀유무와 이혼 후 적응은 상관이 없다는 연구(Bursik, 1991)도 있다.

#### (6) 교육수준

교육은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사회적 지위 상승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더 나은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또한 이혼 관련 선행연구들(Booth & Amato, 1991; Demo & Acock, 1996; Goldberg et al., 1992)에서도 교육수준은 이혼 후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에 따라 직종이나 임금이 비교적 직선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혼 남성들에게서 더 관련이 될 것이다. 즉 아직까지 여성의 능력이 남성의 능력보다 평가 절하되는 사회에서는 이혼 여성의 교육수준보다 이혼 남성의 교육수준이 이혼 후 적응 상황에서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이혼 여성의 경우 이혼 전에 취업할 가능성은 남성보다 낮으며, 이혼 후 재취업을 할 때에도 대부분 단순 서비스, 판매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교육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좌절의 근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자

이 연구는 이혼자의 이혼 후 적응에 대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활만족도와 건강에 어떤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이혼자의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최대한 통제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단일 연령층으로는 이혼율이 가장 높은 20, 30대 이혼 남녀로,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

하며, 이혼한 지 6개월에서부터 5년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20, 30대 이혼 남녀 총 22명을 대상으로 2003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되었다. 예비조사 과정에서 주로 살펴본 내용은 서구에서 개발된 질문 척도가 한국 상황에서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측면과, 이혼자들의 이혼 후 삶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항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에서 예비조사 자료를 토대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문항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 2) 본조사

본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다년간 질문지 조사를 한 조사원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들이 직접 한문항도 빠짐없이 질문지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형식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2003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회수된 자료 중 질문지 응답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최종 226부(이혼 남성 114부, 이혼 여성 112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의 구성<sup>1)</sup>

##### 1) 이혼 후 적응 변인 척도

(1) 이혼 후 적응은 이혼관련 선행연구들(한경혜, 1993b; Kitson & Raschke, 1981; Kitson & Morgan, 1990; Spanier & Castro, 1979 등)에서 사용한 정의에 근거하여, 이혼 전, 후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면서 이혼 후의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지면 관계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척도의 구성을 한 곳에 설명하였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이혼 후 적응을 생활만족도와 건강으로 측정하였다. 생활만족도는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가 정의한 현재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나 평가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척도는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내용을 대립되게 제시한 총 12문항으로,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12점에서부터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건강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최연실, 1996; McCubbin & Patterson, 1988; Norem, Malia, & Garrison, 1988)에서 사용한 정의에 근거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증상이라고 정의하였다. 건강 척도는 Norem, Malia와 Garrison(1988)이 개발한 가족건강상태 척도(Family Health Status Inventory: FHSI)를 번안하여 본 조사대상자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척도 문항은 총 16문항이다. 척도상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16점에서 8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 2) 스트레스 변인 척도

(1)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은 이혼관련 선행연구들(이종원, 2002; 최규련, 1994)에서 사용한 정의에 근거하여, 이혼 전 부부가 서로의 자원이나 목표의 차이로 인해 각자의 욕구가 성공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호이해의 결여로 인해 경험했던 어려움이나 긴장으로 정의하였다.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척도는 최규련(1994)의 부부갈등척도를 본 조사 대상자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21점에서 10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했음을 의미한다.

(2) 이혼 전 생활사건: 이혼 전 생활사건은 선행연구들(최연실, 1996; McCubbin, Patterson & Wilson, 1982 등)을 참고로 하여 이혼 전 1년간 경험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란 기존 가족체계 내에 변화를 일으

키거나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비연속적 사건과 전이를 의미한다. 척도는 McCubbin과 그의 동료들(1982)이 작성한 가족생활사건 및 변화 척도(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를 20, 30대 이혼 남녀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전체 척도 문항은 64문항으로, 이혼 전 1년 동안 해당 생활사건의 경험 여부에 대해 '그렇다' 1점, '아니다' 0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응답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에서부터 6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한 것이 된다.

(3) 이혼 당시 생활수준: 이혼 당시 생활수준은 이혼 당시 직업 소득이나 주위 사람들의 지원이 이혼 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이혼 남녀의 지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1점부터 매우 그랬다 5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 후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이 높은 것이 된다.

(4) 가정경제불만족도: 가정경제불만족도는 성미애(1999)의 정의에 따라서, 현재 자신의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서 오는 불만족도로 정의하였다. 척도는 총 5문항으로,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5점에서 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경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5)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은 이전의 결혼과 전 배우자에게 구속되어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재조직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척도는 Wang과 Amato(2000)가 사용한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척도 4문항으로,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에서 2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에게 애착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3) 자원 변인 척도

(1)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관련 선행연구들(김성희, 2003; 한경혜 외, 2002, 2003)에 기초해, 이혼에 대해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

관 및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척도는 상이한 배경의 이혼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총 10문항으로,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자 자신의 행동이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위 사람들이 이혼자의 이혼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척도는 이혼자에게 의미있는 타자가 되는 주위 사람들이 이혼자의 이혼을 인정하는지,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는지, 이혼 결정을 받아들이는지, 재결합하기를 바라는지, 전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총 5문항으로,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5점에서 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미있는 타자들이 이혼자의 이혼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최연실, 1996; McCubbin & Patterson, 1988)에서 사용한 정의에 근거하여,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관계망으로부터 제공받는 도움이라고 정의하였다. 척도는 McCubbin, Olson과 Larsen(1987)이 제작한 가족위기에 대한 개인 평가 척도(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 F-COPES)와, 최연실(1996)이 구성한 척도를 본 조사대상자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풍부함을 의미한다.

#### 4. 척도의 신뢰도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척도는 가족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4인이 그 내용을 검증한 뒤 구성된 것으로, 각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이혼 후 적응 척도의 하위 영역인 생활만족도 척도는 .93, 건강 척도는 .79,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척도는 .80, 가정경제

불만족도 척도는 .88,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척도는 .77, 이혼에 대한 태도 척도는 .77,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척도는 .61, 사회적 지원 척도는 .84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 5. 자료의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SPSS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계 처리하였는데, 각 척도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20, 30대 이혼 남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평균,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마지막으로 이혼 후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이 20, 30대 이혼 남녀의 생활만족도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20, 30대 이혼상태에 있는 남녀로, 연령은 남녀 모두 대다수가 30대이며, 평균 연령은 남성의 경우 34.3세, 여성의 경우 34.2세로 거의 비슷하였다. 직업의 경우 남성은 사무직이 많았으며, 여성은 영업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월소득은 남성은 평균 232만원이었고, 여성은 161만원이었다. 이 수준은 2002년 도시근로자 가계 평균 소득(통계청, 2003)인 2,792,400원 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가계 경제가 양분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데, 그 수준은 여성이 더 함을 알 수 있다. 종교는 남성의 경우 절대 다수가 무교였고, 여성은 무교, 기독교 순서였다. 주거형태는 남성의 경우 43.9%가 전세에 살고 있었고, 자가를 소유한 경우는 34.2%였으며, 여성의 경우는 과반수가 전세에 살고 있었다. 결혼지속기간은 남성의 경우 평균 5년 3개월, 여성의 경우는 6년 3개월 정도였다. 이혼 후 기간은 남성의 경우 평균 2년, 여성은 평균 2년 2개월이었다. 이혼형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대다수가 협의이혼이었다. 이혼당시 직업에 있어서는 남성

의 경우 대다수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으며, 여성의 경우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2.9%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2)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의 일반적 특성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은 남녀 모두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혼 전 1년 동안 경험한 생활사건은 64문항 중 절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혼 전 1년이라는 시점이 말해주듯이 남녀 모두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하기가 어려워졌다', '집안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아졌다',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빚을 지게 되었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졌다' 등의 문항에 대해서 과반수가 경험하였다고 밝혔다.

이혼 당시 생활수준에 대해서 남성은 중간 수준 이상으로 만족하였으나, 여성은 그렇지 못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t=4.18, p<.001$ ). 이혼 남녀 모두 현재의 가정경제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었는데, 그 불만족 수준은 여성이 더 높았다( $t=-2.83, p<.01$ ). 현재 남녀 모두 전 배우자에 대해 애착하지 않고 있으며 남녀 모두 이혼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를 보였는데 여성이 더 수용적인 경향을 보였다( $t=-2.59, p<.05$ ). 의미있는 타자들이 본인의 이혼에 대해 남녀 모두 수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성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t=-3.07, p<.01$ ).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었다.

이혼 후 남녀 모두 과반수인 67.6%, 86.2%가 이사를 경험했는데, 여성이 이사를 한 비율이 높았다( $\chi^2=10.64, p<.01$ ). 이혼제기는 주로 본인과 부부가 함께 한 경우가 남성은 70.4%, 여성은 87.2%로 높았는데, 성별로 차이가 있어 여성이 본인과 부부가 함께 이혼을 제기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chi^2=9.15, p<.01$ ). 현재 남성 과반수인 72.2%는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평균 자녀수는 1.3명이며, 여성도 과반수인 69.7%가 자녀를 1명 이상 두고 있으며, 평균 자녀수는 1.5명이었다. 남성은 과반수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 성	집 단	이혼 남성	이혼 여성
		빈도(%)	빈도(%)
연 령	20~29세	15(13.2)	22(19.6)
	30~39세	99(86.8)	90(80.4)
		114(100.0) 평균 연령 34.3세	112(100.0) 평균 연령 34.2세
직 업	전문·관리직	3( 2.6)	5( 4.5)
	사무직	49(43.0)	29(25.9)
	생산·기술직	20(17.5)	2( 1.8)
	영업·서비스직	15(13.2)	44(39.3)
	자영업	27(23.7)	21(18.7)
	전업주부	.	4( 3.6)
	무직	.	7( 6.2)
		114(100.0)	112(100.0)
월소득	소득없음	.	8( 7.3)
	100만원 미만	.	1( 0.9)
	100~200만원 미만	23(20.2)	59(53.6)
	200~300만원 미만	64(56.1)	34(30.9)
	300만원 이상	27(23.7)	8( 7.3)
		114(100.0)	110(100.0)
종 교	기독교	16(14.0)	34(30.4)
	천주교	4( 3.5)	14(12.5)
	불교	11( 9.7)	14(12.5)
	무교	83(72.8)	50(44.6)
		114(100.0) 평균 232만원	112(100.0) 평균 161만원
주거 형태	자가	39(34.2)	21(18.7)
	전세	50(43.9)	73(65.2)
	월세	7( 6.1)	7( 6.3)
	부모님집	18(15.8)	8( 7.1)
	친척집	.	1( 0.9)
	기타	.	2( 1.8)
			114(100.0)
결혼 지속 기간	1년 미만	6( 5.3)	5( 4.5)
	1년~3년 미만	37(32.4)	32(28.6)
	3년~5년 미만	19(16.7)	9( 8.0)
	5년~7년 미만	10( 8.8)	14(12.5)
	7년~10년 미만	29(25.4)	28(25.0)
	10년 이상	13(11.4)	24(21.4)
		114(100.0)	112(100.0)
이혼 후 기간	6개월~1년 미만	23(20.2)	22(19.7)
	1년~2년 미만	48(42.1)	25(22.3)
	2년~3년 미만	18(15.8)	38(33.9)
	3년~5년 미만	25(21.9)	27(24.1)
		114(100.0) 평균 5년 3개월	112(100.0) 평균 6년 3개월

<표 1> 계속

특 성	집 단	이혼 남성	이혼 여성
		빈도(%)	빈도(%)
이혼 형태	재판이혼 협의이혼 기타	6( 5.3)	17(15.2)
		107(93.8)	95(84.8)
		1( 0.9)	.
		114(100.0) 평균 2년	112(100.0) 평균 2년 2개월
이혼당시 직업유무	유 무	111(97.4)	48(42.9)
		3( 2.6)	64(57.1)
		114(100.0)	112(100.0)

인 64.8%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고, 여성은 과반수인 64.2%가 고졸 이하로 여성보다 남성의 학력 수준이 높았다( $\chi^2=18.29, p<.01$ ).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 수준

###### 1)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생활만족도 수준

20, 30대 이혼 남녀는 힘든 결혼생활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사회관계망의 축소, 경제상태의 변화 등 현실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 탓에 이혼 후 현재 중간보다 낮은 수준(남 - 평균값: 34.12점, 표준편차: 6.75점/중간값: 35점//여 - 평균값: 33.91점, 표준편차: 9.29점/중간값: 35점)의 생활 만족도를 보였다. 즉 조금은 생활이 즐겁다기보다는 괴롭고(남 - 평균값: 2.67점, 표준편차: .77점/여 -

2) 통계방법이 다른 내용을 한 표로 만드는 데 있어 기술적인 문제로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을 구분하지 않고 제시하였음.

<표 2>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 관련 일반적 특성2)

	이혼 남성(N=108)	이혼 여성(N=109)	척도 점수범위	중간값	t
	평균(SD)	평균(SD)			
이혼 전 전 배우자와의 갈등	75.61(8.96)	75.14(8.79)	21-105	63	.39
이혼 전 생활사건	16.46(9.32)	16.20(7.71)	0-64	32	.23
이혼당시 생활수준	3.26(.67)	2.84(.78)	1-5	3	4.18***
가정경제불만족도	15.86(2.74)	17.15(3.86)	5-25	15	-2.83**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11.08(2.36)	10.53(3.01)	4-20	12	1.50
이혼에 대한 태도	35.94(4.57)	37.58(4.79)	10-50	30	-2.59*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15.92(2.31)	16.95(2.70)	5-25	15	-3.07**
사회적 지원	28.69(5.67)	29.80(6.57)	10-50	30	-1.32

  

	구 분	이혼 남성(N=108)	이혼 여성(N=109)	$\chi^2$
		평균(SD)	평균(SD)	
이사여부	했음	73(67.6)	94(86.2)	10.64**
	안했음	35(32.4)	15(13.8)	
이혼제기자	본인+부부가 함께	76(70.4)	95(87.2)	9.15**
	그 외	32(29.6)	14(12.8)	
자녀유무	유	78(72.2)	76(69.7)	.16
	무	30(27.8)	33(30.3)	
		평균 1.3명	평균 1.5명	
교육수준	대졸이상	70(64.8)	39(35.8)	18.29***
	고졸이하	38(35.2)	70(64.2)	

평균값: 2.78점, 표준편차: .85점), 충만하다기보다는 공허하고(남 - 평균값: 2.47점, 표준편차: .87점/여 - 평균값: 2.41점, 표준편차: .96점), 보람 있다기보다는 실망스럽고(남 - 평균값: 2.70점, 표준편차: .79점/여 - 평균값: 2.72점, 표준편차: .93점), 성공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기보다는 성공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남 - 평균값: 2.97점, 표준편차: .80점/여 - 평균값: 2.93점, 표준편차: 1.02점), 재미있다기보다는 지루하고(남 - 평균값: 2.71점, 표준편차: .87점/여 - 평균값: 2.74점, 표준편차: .97점), 희망차다기보다는 좌절스럽고(남 - 평균값: 2.77점, 표준편차: .85점/여 - 평균값: 2.69점, 표준편차: 1.02점), 친구가 많다기보다는 외롭고(남 - 평균값: 2.66점, 표준편차: .89점/여 - 평균값: 2.56점, 표준편차: 1.02점), 행복하다기보다는 불행하고(남 - 평균값: 2.93점, 표준편차: .75점/여 - 평균값: 2.87점, 표준편차: .86점), 만족스럽다기보다는 불만족스럽다(남 - 평균값: 2.92점, 표준편차: .74점/여 - 평균값: 2.80점, 표준편차: 1.02점)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 중에도 이혼이 불행한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이루어진 만큼 지금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을 구속된다고 느끼기보다는 자유롭게 인식하고 있었다(남 - 평균값: 3.44점, 표준편차: .83점/여 - 평균값: 3.45점, 표준편차: 1.08점). 이러한 생활만족도는 20, 30대 이혼 남녀별 차이가 없었다.

## 2)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건강 수준

20, 30대 이혼 남녀는 이혼 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남 - 평균값: 47.08점, 표준편차: 8.75점/ 중간값: 48점//여 - 평균값: 43.81점, 표준편차: 9.43점/ 중간값: 48점),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t=-2.65, p<.01$ ). 특히 '머리가 아프다( $t=-2.17, p<.05$ )', '기분이 가라앉는다( $t=-2.01, p<.05$ )',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t=-2.07, p<.05$ )', '잠들기가 힘들다( $t=-2.32, p<.05$ )', '자다가 자주 깬다( $t=-2.16, p<.05$ )', '의욕이 없다( $t=-2.19, p<.05$ )', '편히 쉬기가 힘들다( $t=-2.95, p<.01$ )', '쉽게 지친다( $t=-3.34, p<.01$ )' 등의 문항에

대해서 여성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이혼 여성은 이혼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사회활동이나 재혼 기회 등에서 이혼 남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성정현, 1998: 환경혜, 1993b; Hetherington, Cox, & Cox, 1978; Shapiro, 1996),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신체적으로 힘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혼 전 시기나 이혼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심인성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났다고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2. 이혼 전, 후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이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

### 1) 이혼 전, 후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혼 전, 후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이 20, 30대 이혼 남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남녀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sup>3)</sup>.

먼저, 이혼 남성의 경우 이혼 전, 후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결과처럼 이혼 전 생활사건( $\beta=-.22, p<.05$ ), 교육수준( $\beta=.21, p<.05$ ) 순으로 지금 현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 전에 경험한 생활사건이 적응수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두 변수가 20, 30대 이혼 남성의 이혼 후 생활만족도를 24%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 남성에게 있어 이혼 전 1년 동안 경험했던 부부관계 문제나 경제적 문제는 이혼 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Booth와 Amato(1991)가 지적하였듯이 교육은 잠재적으로 개인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적응이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분적으로 교

3)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이혼 전, 후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이혼남성 N=114)

관련변수	생활만족도	
	B	$\beta$
스트레스 변인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07	-.09
이혼 전 생활사건	-.16	-.22*
이혼당시 생활수준	1.12	.11
가정경제불만족도	-.33	-.13
이사유무	.91	.06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23	.08
자원 변인		
이혼제기자	-.34	-.02
이혼에 대한 태도	-.04	-.03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40	.14
사회적 지원	.14	.12
자녀유무	1.53	.10
교육수준	2.91	.21*
상수	26.78	
R <sup>2</sup>	.24**	

\*  $p < .05$

1. 이사여부(이사안함=0 이사함=1)
2. 이혼제기자(전 배우자, 본인 부모, 전 배우자 부모, 기타=0 본인, 부부가 함께=1)
3. 자녀유무(무=0 유=1)
4. 교육수준(고졸이하=0 대졸이상=1)

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대처 전략이 뛰어나며, 통제감도 강하고 이혼에 대처할 사회적 지원망도 좋기 때문에(Booth & Amato, 1991; Kitson & Morgan, 1990), 이러한 본인의 교육수준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되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혼 여성의 경우 〈표 4〉에 제시된 결과처럼, 가정경제불만족도( $\beta = -.48, p < .001$ ), 이혼 전 생활사건( $\beta = -.29, p < .001$ ), 이혼 당시 생활수준( $\beta = .24, p < .01$ ), 사회적 지원( $\beta = .19, p < .05$ ) 순으로 이혼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 후 가정경제에 불만족하지 않을수록, 이혼 전 경험한 생활사건이 많을수록, 이혼 당시 이혼 후에도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생활수준이라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표 4〉 이혼 전, 후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이혼여성 N=112)

관련변수	생활만족도	
	B	$\beta$
스트레스 변인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03	.03
이혼 전 생활사건	-.35	-.29***
이혼당시 생활수준	2.86	.24**
가정경제불만족도	-1.16	-.48***
이사유무	3.36	.13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21	-.07
자원 변인		
이혼제기자	1.11	.04
이혼에 대한 태도	-.11	-.06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35	.10
사회적 지원	.26	.19*
자녀유무	2.47	.12
교육수준	.47	.02
상수	30.24	
R <sup>2</sup>	.54***	

\*  $p < .05$  \*\*  $p < .01$  \*\*\*  $p < .001$

1. 이사여부(이사안함=0 이사함=1)
2. 이혼제기자(전 배우자, 본인 부모, 전 배우자 부모, 기타=0 본인, 부부가 함께=1)
3. 자녀유무(무=0 유=1)
4. 교육수준(고졸이하=0 대졸이상=1)

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변수가 20, 30대 이혼 여성의 이혼 후 생활만족도를 54%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 여성의 경우 이혼 후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Holden & Smock, 1991; Smock, 1993)처럼, 이러한 어려움이 물질 토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혼 전 1년 동안 부부관계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받은 상처는 이혼 후에도 정리가 되지 않고 생활을 힘들게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혼 당시 생활수준은 이혼 후 상황을 낙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낙관적 인식이 실제 이혼 후 생활만족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은 어려움을 겪을 때 잠재적 도움을 줌으로써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적게 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이혼 후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혼 여성에게는 이혼 후 생활만족도에 사회적 지원이 중요한 자원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이혼 전, 후 경험하게 되는 여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며, 그러한 스트레스가 이혼 후 생활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혼 여성의 경우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게 되면서 가정경제에 대한 불만족도가 이혼 후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2) 이혼 전, 후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먼저, <표 5>에 제시되어 있듯이 이혼 남성의 경우 이혼 전, 후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을 독립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beta=.27, p < .05$ ), 이혼 전 생활사건( $\beta=-.21, p < .05$ ) 순으로 이혼 후 건강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의 이혼을 의미있는 타자들이 수용할수록, 그리고 이혼 전 경험한 생활사건이 적을수록 이혼 후 신체적 증상이나 심리적 증상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두 변수가 20, 30대 이혼 남성의 이혼 후 건강 수준을 26%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부장적 잔재가 남아있는 우리사회에서 이혼은 대부분 남성의 잘못으로 인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되는 의미있는 타자들이 자신의 이혼을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남성의 이혼 후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앞서도 밝혔듯이 가장(家長)으로서 가족을 화목하게 이끌지 못한 데 대한 콤플렉스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혼 후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김혜련, 1993; Holloway, 1991)에서 주장하였듯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혼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혼자를 혼자인 느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혼 결정에 회의를 느끼게 함으로써 이혼자에게 우울감이

<표 5> 이혼 전, 후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이혼남성 N=114)

관련변수	건강	
	B	$\beta$
스트레스 변인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13	-.14
이혼 전 생활사건	-.20	-.21*
이혼당시 생활수준	.80	.06
가정경제불만족도	-.32	-.10
이사유무	.88	.05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02	.01
자원 변인		
이혼제기자	-.21	-.01
이혼에 대한 태도	.11	.06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1.02	.27*
사회적 지원	-.16	-.10
자녀유무	-.40	-.02
교육수준	1.29	.07
상수	51.80	
R <sup>2</sup>	.26**	

\*  $p < .05$  \*\*  $p < .01$  \*\*\*  $p < .001$

1. 이사여부(이사안함=0 이사함=1)
2. 이혼제기자(전 배우자, 본인 부모, 전 배우자 부모, 기타=0 본인, 부부가 함께=1)
3. 자녀유무(무=0 유=1)
4. 교육수준(고졸이하=0 대졸이상=1)

나 긴장을 가져다주는데, 특히 남성들은 신체적, 심리적 지지원이 되는 사회관계망을 여성보다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타자들의 태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이혼 여성의 경우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처럼,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beta=-.33, p < .01$ ), 이혼 전 생활사건( $\beta=-.28, p < .01$ ),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beta=-.24, p < .01$ ), 사회적 지원( $\beta=.21, p < .05$ )이 이혼 후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덜 애착할수록, 이혼 전 생활사건을 덜 경험할수록, 이혼 전 배우자와 갈등을 덜 경험할수록,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이혼 후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변수가 20, 30대 이혼 여성의 이혼 후 건강 수준을 36% 설명하였다.

〈표 6〉 이혼 전, 후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이 이혼 후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이혼여성 N=112)

관련변수	건강	
	B	$\beta$
스트레스 변인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25	-.24*
이혼 전 생활사건	-.34	-.28**
이혼당시 생활수준	2.12	.18
가정경제불만족도	-.45	-.18
이사유무	-1.07	-.04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1.04	-.33**
자원 변인		
이혼제기자	4.58	.16
이혼에 대한 태도	-.33	-.17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07	-.02
사회적 지원	.30	.21*
자녀유무	-1.17	-.06
교육수준	-1.57	-.08
상수	14.48	
R <sup>2</sup>	.36***	

\*  $p < .05$  \*\*  $p < .01$

1. 이사여부(이사안함=0 이사함=1)
2. 이혼제기자(전 배우자, 본인 부모, 전 배우자 부모, 기타=0 본인, 부부가 합계=1)
3. 자녀유무(무=0 유=1)
4. 교육수준(중졸이하=0 대졸이상=1)

이러한 결과는 이혼 후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정서적 이혼을 방해하여 이혼 후 적응을 어렵게 한다(한경혜, 1993a; Berman, 1985; Kitson, 1982; Weiss, 1975)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이혼 여성의 경우에는 지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혼 전 1년 동안 경험한 생활사건은 부부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화되어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혼 후 생활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혼 여성을 지치게 하여 이혼 후 건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혼 전 부부간 갈등은 이혼 전 부모 자신과 자녀의 정서나 심리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이혼 후까지 계속된다는 Sprey(1979)의 진술처럼, 이혼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악화시킴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은 어려움을 완

화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적게 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결과(문현숙, 김득성, 2000; 변화순, 1996; 성정현, 1998; 한경혜, 1993b; Kitson & Morgan, 1990 등)처럼 이혼 여성의 이혼 후 건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20, 30대 이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혼 후 적응, 구체적으로 생활만족도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이혼한 지 6개월에서 5년 이내에 있는 단일 연령층으로는 이혼율이 가장 높은 20, 30대 이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혼 후 생활만족도, 건강 수준 및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을 성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20, 30대 이혼 남녀는 힘든 결혼생활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사회관계망의 축소, 경제상태의 변화 등 현실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 탓에 이혼 후 중간보다 낮은 생활만족도를 보이며,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 상태는 이혼 남성보다 이혼 여성이 더 심각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이혼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이혼 후 적응 과정은 남녀 모두에게 힘들며, 특히 여성들이 적응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지쳐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혼 남성의 생활만족도는 이혼 전 생활사건, 교육수준 순으로 영향을 받는다. 즉 이혼 전에 경험한 생활사건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 후 생활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이 두 변수가 20, 30대 이혼 남성의 이혼 후 생활만족도를 24% 설명한다. 반면, 이혼 여성은 가정경제불만족도, 이혼 전 생활사건, 이혼 당시 생활수준, 사회적 지원 순으



로 이혼 후 생활만족도가 영향을 받는다. 즉 이혼 후 가정경제에 불만족하지 않을수록, 이혼 전 경험한 생활사건이 많을수록, 이혼 당시 이혼 후에도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생활수준이라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변수가 이혼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54% 설명한다.

이와 같이 20, 30대 이혼 남녀는 동일하게 이혼이라는 사건을 경험했지만 이혼 전 경험한 생활사건이 이혼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즉 이혼 남성의 생활만족도에는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이 큰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혼 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주로 스트레스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으로 작용하는 변수에서도 차이를 보여,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라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이혼 후 생활을 만족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한 반면, 여성에게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중요한 등 성 차별적 사회구조가 이혼 후 상황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혼 남성은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 전 생활사건 순서로 이혼 후 건강이 영향을 받는다. 즉 본인의 이혼을 의미있는 타자들이 수용할수록, 그리고 이혼 전 경험한 생활사건이 적을수록 이혼 후 신체적 증상이나 심리적 증상을 덜 경험한다. 그리고 이 두 변수가 20, 30대 이혼 남성의 이혼 후 건강 수준을 26% 설명한다. 반면, 이혼 여성의 건강은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이혼 전 생활사건,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사회적 지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덜 애착할수록, 이혼 전 생활사건을 덜 경험할수록, 이혼 전 배우자와 갈등을 덜 경험할수록,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이혼 후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덜 경험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변수가 20, 30대 이혼 여성의 이혼 후 건강 수준을 36% 설명한다.

이처럼 20, 30대 이혼 남녀는 동일하게 이혼 전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 인해 이혼 후 건

강 상태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여성이 더 취약하여 이혼 여성의 경우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나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이 가슴 한편에 앙금으로 남아 이혼 후에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들게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혼 남성의 경우 의미있는 타자라는 중요한 사람들이 본인의 이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신체 및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자원이 되었으나 이혼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이혼 전 갈등 상황에서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상처를 실제로 치유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이혼 후 건강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연구의 결과는 이혼 남녀 모두 이혼 전 1년 동안 경험한 생활사건이 이혼 후 생활만족도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다른 변수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혼 남성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도 다르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혼 후 적응 교육 프로그램에는 이혼 남녀를 불문하고 이혼 전 1년간 경험한 생활사건을 치유할 수 있는 상담 과정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의미있는 타자들과 지지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이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이혼 후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청구권 같은 구체적인 법률 정보나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전문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전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치료 과정을 강화하며, 실제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을 연결해 주는 내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이혼 전, 후 상황까지 고려해서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생활만족도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구명하여, 실제적인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변인과 자원 변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생활만족도와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지는 살펴보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적응 기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20, 30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의 이혼 후 적응 교육 프로그램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응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혼율이 점차 증가하는 중년기나 노년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경집(2002). 이혼가정 아동 적응 프로그램 고찰. 연세교육연구, 15(1), 1-17.
- 김득성(2002). 이혼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단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8.
- 김성희(2003). 청년 남녀의 이혼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75-85.
- 노영주(2001). 이혼 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43-63.
- 문현숙, 김득성(2000).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99-120.
- 문현숙, 김득성(2002).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장기 교육프로그램의 모형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0(6), 197-211.
- 박경애(2000). 한국의 이혼을 추이와 의미. 한국인구학, 23(1), 5-29.
- 박부진(2000). 한국사회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의 문제. 사회과학연구, 9, 84-101.
- 박찬미, 서병숙(1987).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45-162.
- 변화순(1996).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성미애(1999). 남성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정현(1998). 이혼 여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와 대처전략. 사회복지연구, 11, 53-78.
- 성정현(1999). 이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 93-116.
- 성정현, 송다영, 정미숙, 한정원, 김 진(2001). 재판이혼의 사례를 통해 본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 실태와 대안. 사회복지연구, 18.
- 신화용, 조병은(1996). 편모가 인지한 자원과 편모의 심리적 적응. 가족학논집, 8, 57-76.
-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1: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7-182.
- 옥선화, 성미애(2004).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과 이혼 후 적응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2)계재예정.
- 옥선화, 성미애, 신기영(2000).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8(9), 1-20.
- 이재경(2000). 성별화된 이혼과 여성. 가족과 문화, 12(2), 81-98.
- 이현송(1999). 주관적 이혼 사유의 변화. 가족과 문화, 11(2), 25-45.
- 장혜경, 민가영(200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조병은(1993). 가족의 위기와 해체.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가족학. 서울: 하우. 319-354.
- 최연실(1996). 청소년자녀가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03).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 한경혜(2003a). 이혼과 부부문제의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학회 편.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하우. 57-78.
- 한경혜(1993b).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 학연구회 편.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하우. 79-104.
- 한경혜, 김영희(1994). 이혼여성의 전배우자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가족학논집, 6, 103-128.
- 한경혜, 이정화(2002). 도시 및 농촌거주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0(9), 161-174.

- 한경혜, 강유진, 한민아(2003). 이혼태도와 관련 요인. *가족과 문화*, 15(1), 77-96.
- Amato, P. R. (2000).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69-1287.
- Berman, W. H., & Turk, D. C. (1981). Adaptation to Divorce: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179-189.
- Booth, A., & Amato, P. R. (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96-407.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Y.: Russel Sage Foundation.
- Fine, M. A., McKenry, P. C., & Chung, H. (1992). Post-divorce adjustment of Black and White single parent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7(3), 121-134.
- Hemström, Ö. (1996). Is marriage dissolution linked to differences in mortality risks for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366-378.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78). *Divorced children*. *Psychology Today*, 10, 42-46.
- Holden, K. C., & Smock, P. J. (1991). The economic costs of marital dissolution: Why do women bear a disproportionate cost?. *Annual Review of Sociology*, 17, 51-78.
- Kitson, G. C. (1982). Attachment to the spouse in divorce: A scale and its appli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6), 379-393.
- Kitson, G. C. (1992). *Portrait of divorce: Adjustment to marital breakdown*. NY: Guilford Press.
- Kitson, G. C., & Raschke, H. J. (1981). Divorce research: What we know; what we need to know. *Journal of Divorce*, 4, 1-37.
- Kitson, G. C., & Morgan, L. A. (1990). The multiple consequences of divorce: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6), 913-924.
- Masheter, C. (1991). Postdivorce Relationships between Ex-Spouses: The Roles of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3-110.
-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8). Family stress and adaptation to crises: A double ABCX model of family behavior. In D. H. Olson & B. C. Miller(eds.). *Family studies review yearbook*. Beverly Hills, CA: Sage.
- McCubbin, H. I., & Patterson, J. M., & Wilson, L. (1981).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FILE): Research instrument*.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Ross, C. E. (1995). Reconceptualizing Marital Status as a Continuum of Social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29-140.
- Shapiro, A. D. (1996). Explaining psychological distress in a sample of remarried and divorced persons. *Journal of Family Issues*, 17, 186-203.
- Spanier, G., & Castro, R. (1979). Adjustment to separation and divorce: A qualitative analysis, In G. Levinger & O. Males(eds.). *Divorce and separation: Context causes consequences*(pp.211-227), NY: Basic Books.
- Sprey, J. (1975). Family Power and Process: toward a conceptual integration. In R. E. Cromwell & D. H. Olson(eds.). *Power in Families*. New York: Halsted press. 61-79.
- Wang, H., & Amato, P. R. (2000). Predictors of divorce adjustment: Stressors, resources, and defin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655-669.
- Weiss, R. S. (1975). *Marital se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2004년 6월 22일 접수, 2004년 9월 7일 채택)

## 〈부록 1〉 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 1. 20, 30대 이혼 남성의 생활만족도와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N=1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00												
2	.14	1.00											
3	-.22*	-.05	1.00										
4	.17	.08	-.48**	1.00									
5	.06	.05	.09	.04	1.00								
6	-.03	.02	-.15	-.24*	-.04	1.00							
7	.03	.13	.04	-.06	-.02	.02	1.00						
8	.41**	-.03	.03	-.04	-.01	-.16	-.04	1.00					
9	-.05	-.16	.06	.03	.03	-.45**	-.19	.15	1.00				
10	.12	.21*	-.12	-.13	.02	.26**	.01	-.16	-.20*	1.00			
11	-.06	.14	-.16	.29**	-.12	-.19*	-.09	.02	.18	.14	1.00		
12	-.20*	-.06	.28**	-.23*	.07	.00	-.01	-.04	.07	-.04	-.02	1.00	
13	-.22*	-.24*	.23*	-.26**	.06	.05	-.08	-.07	.15	.07	.04	.31**	1.00

1.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2. 이혼 전 생활사건

3. 이혼당시 생활수준

4. 가정경제불만족도

5. 이사여부(이사안함=0 이사함=1)

6.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7. 이혼제기자(전 배우자, 본인 부모, 전 배우자 부모, 기타=0

본인, 부부가 함께=1)

8. 이혼에 대한 태도

9.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10. 사회적 지원

11. 자녀유무(무=0 유=1)

12. 교육수준(고졸이하=0 대졸이상=1)

13. 생활만족도

## 2. 20, 30대 이혼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N=1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00												
2	.01	1.00											
3	.02	.15	1.00										
4	-.19*	-.10	-.40**	1.00									
5	.03	-.05	-.15	.20*	1.00								
6	-.15	.07	-.09	-.11	.04	1.00							
7	.06	.24*	.03	-.04	-.07	-.17	1.00						
8	.23*	-.13	.03	.06	-.10	-.00	-.09	1.00					
9	.13	-.10	.22*	-.06	-.31**	-.46**	.08	.23*	1.00				
10	-.05	.26**	.22*	-.35	-.09	.31**	.04	-.12	-.04	1.00			
11	-.17	.21*	-.06	-.08	-.03	.07	-.01	-.12	-.00	.11	1.00		
12	-.03	-.02	.25**	-.25**	-.09	.03	.00	.18	.11	.15	-.22*	1.00	
13	.11	-.14	.44**	-.62**	-.04	-.05	.02	-.06	.19*	.32**	.10	.20*	1.00

1.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2. 이혼 전 생활사건

3. 이혼당시 생활수준

4. 가정경제불만족도

5. 이사여부(이사안함=0 이사함=1)

6.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7. 이혼제기자(전 배우자, 본인 부모, 전 배우자 부모, 기타=0

본인, 부부가 함께=1)

8. 이혼에 대한 태도

9.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10. 사회적 지원

11. 자녀유무(무=0 유=1)

12. 교육수준(고졸이하=0 대졸이상=1)

13. 생활만족도

## 3. 20, 30대 이혼 남성의 건강과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N=1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00												
2	.14	1.00											
3	-.22*	-.05	1.00										
4	.17	.08	-.48**	1.00									
5	.06	.05	.09	.04	1.00								
6	-.03	.02	-.15	-.24*	-.04	1.00							
7	.03	.13	.04	-.06	-.02	.02	1.00						
8	.41**	-.03	.03	-.04	-.01	-.16	-.04	1.00					
9	-.05	-.16	.06	.03	.03	-.45**	-.19	.15	1.00				
10	.12	.21*	-.12	-.13	.02	.26**	.01	-.16	-.20*	1.00			
11	-.06	.14	-.16	.29**	-.12	-.19*	-.09	.02	.18	.14	1.00		
12	-.20*	-.06	.28**	-.23*	.07	.00	-.01	-.04	.07	-.04	-.02	1.00	
13	.21*	.31**	-.20*	.17	-.04	.14	.09	-.07	-.34**	.22*	.05	-.18	1.00

1.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2. 이혼 전 생활사건

3. 이혼당시 생활수준

4. 가정경제불만족도

5. 이사여부(이사안함=0 이사함=1)

6.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7. 이혼제기자(전 배우자, 본인 부모, 전 배우자 부모, 기타=0

본인, 부부가 함께=1)

8. 이혼에 대한 태도

9.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10. 사회적 지원

11. 자녀유무(무=0 유=1)

12. 교육수준(고졸이하=0 대졸이상=1)

13. 건강

## 4. 20, 30대 이혼 여성의 건강과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N=1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00												
2	.01	1.00											
3	.02	.15	1.00										
4	-.19*	-.10	-.40**	1.00									
5	.03	-.05	-.15	.20*	1.00								
6	-.15	.07	-.09	-.11	.04	1.00							
7	.06	.24*	.03	-.04	-.07	-.17	1.00						
8	.23*	-.13	.03	.06	-.10	-.00	-.09	1.00					
9	.13	-.10	.22*	-.06	-.31**	-.46**	.08	.23*	1.00				
10	-.05	.26**	.22*	-.35**	-.09	.31**	.04	-.12	-.04	1.00			
11	-.17	.21*	-.06	-.08	-.03	.07	-.01	-.12	-.00	.11	1.00		
12	-.03	-.02	.25**	-.25**	-.09	.03	.00	.18	.11	.15	-.22*	1.00	
13	.18	.15	-.26**	.22*	.11	.27**	-.18	.24*	-.15	-.16	.04	-.03	1.00

1.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2. 이혼 전 생활사건

3. 이혼당시 생활수준

4. 가정경제불만족도

5. 이사여부(이사안함=0 이사함=1)

6.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7. 이혼제기자(전 배우자, 본인 부모, 전 배우자 부모, 기타=0

본인, 부부가 함께=1)

8. 이혼에 대한 태도

9.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10. 사회적 지원

11. 자녀유무(무=0 유=1)

12. 교육수준(고졸이하=0 대졸이상=1)

13. 건강